

##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고등부 축구 아쉬운 준우승

#경희고 #전국체전 준우승 #수고했어!



경희고등학교는 올해 서울시 여러 고등학교들과 예선전을 치루고, 제 100회 전국 체육대회 남자 고등부 경기에 당당히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였다.

첫 번째 경기는 10월 3일 경기메탄고와의 승부였는데, 이날 경희고는 강력한 우승후보인 메탄고를 제압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매년 우승을 휩쓸던 메탄고를 경희고만의 강한 압박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무너뜨린 것이다. 메탄고를 상대로 2:1 승리, 특히 메탄고의 자살골은 많은 관중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메탄고를 제압한 경희고는 이를 뒤, 충남천안제일고를 만났다. 제일고가 리드하는 분위기에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게임도중 수비수 장성록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였지만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경희고는 상대의 빈틈을 잘 파고들어 2:0으로 경기를 마무리 하였다.

10월 7일, 광주금호고등학교와의 4강 경기는 앞 두 경기보다 좀 더 버겁게 진행됐다. 광주금호고는 지난 8월 프로 산하 팀 간 전국대회인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을 거둔 만큼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팀이었다. 굵은 날씨에서 시작된 경기 전반, 양 팀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의 공방전이 계속 되었지만 서로의 골문을 열지는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체력으로 지쳐가던 후반 38분, 수비수 변준수 선수의 헤딩슛으로 경희고가 흐름을 리드했고, 경기의 승부는 결정됐다. 이로써 경희고는 올해 3번째 전국대회 결승진출(무학기, 백록기)을 하게 되었다.

많은 고비를 겪고 결승에서 만난 팀은 인천대건고등학교였다. 대건고등학교는 인천 유나이티드 U-18 선수들로 구성된 인천 유스팀이다. 경희고가 경계를 많이 했던 학교 중 한 곳으로, 타 학교에 비해 다양한 전술과 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결승까지 올라온 팀이다. 걱정과 달리 경희고는 전반 3분 세트피스에서 변준수 선수의 강한 헤딩골로 앞서나가기 시작하지만, 인천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날카로운 공격을 막지 못하고 후반 20분 실점을 하였다. 인천의 응원으로 인해 사기가 오른 대건고는 후반 36분 역전골을 뽑으며 경기를 뒤집었다. 끝내 경기 종료까지는 큰 이변이 없었고, 1:2 스코어로 경기가 마무리 되었다.

경희고는 올해 무학기, 백록기 대회에 이어 이번 전국체전 준우승을 통해 세 번 연속 준우승이라는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 3연속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아쉬울 법도 하지만, 메탄고나 금호고 같은 강력한 우승후보를 꺾고 결승까지 진출한 자체로도 경희고는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비록 경고누적으로 인한 퇴장과 결승전에서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잘 마무리 되었다. 이번 준우승을 통해 경희고등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808 김준원-

## Robotex Asia 2019

#아시아에서도 #역시 #경히고 #로봇반!



8월 16일~20일, Robotex Asia 2019에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 장소는 중국의 상해, 출전 학생들은 며칠 동안 학교를 벗어나 국제대회에 당당히 참가하고 왔다.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종목은 Line Tracing으로, 팀별로 제작한 로봇이 라인을 따라 달리며 일찍 도착한 순으로 우승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로봇 제작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술로 구분되는데, 이 종목에서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은 로봇이 라인을 확인하며 바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며, 하드웨어를 다루는 것은 로봇이 튼튼하면서도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차체 무게를 줄이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경희고 학생들 총 5팀이 참여한 상황에서 4팀이 2위를, 1팀이 3위를 거머쥐며 대회는 마무리됐다. 아시아라는 큰 규모에서도 멋지게 실력을 보여주었고 온 우리 경희고 1학년 학생들의 앞날이 기대되는 바이다.



## Robotex Korea International 2019

#전 세계에서든 #역시 #경히고 #로봇반!



10월 6일, 인천 송도 뉴욕주립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최된 'Robotex Korea International 2019'에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2009년 처음 개최되어 10년간 매년 진행되는 이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로봇 과학 코딩대회이다. 올해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Robotex International임에도 불구하고 16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였다. 총 4개로 구성된 종목 중 경희고 학생들은 Folk Race, Line Following, Robot-Sumo에 출전하였다.

먼저 'Folk Race' 종목은 변화하는 레일의 폭에 따라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임을 변화하며 주행해야 하는 경기로, 레일을 달릴 때마다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Folk Race에는 이정희(1-1), 김지우(1-7), 김진규(1-5) 학생이 한 팀으로 참가했다.

두 번째로 'Line Following' 종목은 복잡한 라인을 로봇이 자율적으로 인식하여 라인에 따라 목표지점까지 주행해야 하는 경기로, 4라운드 중 2번 이상 정확히 완주한 팀 중 빠르게 도달한 팀으로 순위를 정했다. Line Following에는 김유현(1-2), 박성준(1-3), 박근형(1-4) 학생으로 구성된 팀과 류지호(1-3), 김호준(1-7), 신주호(1-7)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했다.

세 번째로 'Robot-Sumo' 종목은 미리 제작한 로봇으로 정해진 원형의 경기장 위에서 상대 로봇을 밀어 넘어뜨리는 경기로, 로봇의 크기와 무게가 규정되어있어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해야 하는 종목이다. Robot-Sumo에는 1-3 신효철·한근희 학생이 참가했다.

전국의 실력이 쟁쟁한 학생들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경희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참가 학생 중 Folk Race 부문의 이정희(1-1), 김지우(1-7), 김진규(1-5) 팀이 2위를, Line Following 부문의 김유현(1-2), 박성준(1-3), 박근형(1-4) 팀이 3위를 하며 경희고등학교 로봇반의 위상을 드높였다.



## 1~2학년 가을소풍

#푸르른 #가을엔 #소풍을 가자



지난 10월 8일 화요일,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2학년 1반의 소풍 장소는 한강이었는데, 미리 한강의 족구장과 농구장을 빌려 경기를 하며 활기찬 시간을 가졌다. 활동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으신 오만근 선생님께서 맛있는 밥을 사주셨고, 반 학생들의 엄청난 환호 속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었다. 2학년 1반의 소풍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한 하루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107 박승훈, 20113 송창학-



2학년 4반과 8반은 함께 가을 소풍으로 도봉산을 다녀왔다. 그 전날인 7일에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로 인해 정상까지 등반하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하늘은 우리 편이었다.

소풍 당일, 걱정하던 비는 오지 않았고 강한 햇볕만 내리쬘었다. 원래 계획은 9시까지 도봉산 매표소에 모여 마당바위를 찍고 하산하는 것이었는데, 몇몇 학생들이 약속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 그 때문에 일찍 온 학생들은 김남중 선생님과 함께 먼저 출발하여 마당바위에서 늦게 온 친구들을 기다리기로 하였고, 늦게 출발하는 학생들은 장준혁 선생님과 함께 뒤따라 올라가기로 하였다. 쉽지 않은 코스였기에 몇몇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했다. 그래도 친구의 도움으로 함께 마당바위까지 등반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한 단계 더 돈독히 다지고 협동심을 길렀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또한, 산을 등반하면서 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 같이 도봉산 입구에서 미리 구매한 김밥을 먹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하산했다. 비교적 더운 날씨였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등산을 마쳤다는 것이 정말 경이롭다.

-20812 박서진-

## 자랑스러운 동문 승명호 회장의

### 깜짝 모교 방문

#기숙사 건립 #후배사랑 #선배사랑



지난 14일 12기 졸업생인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이 본교에 방문했다. 이는 본교의 기숙사 건립을 위해 20억을 기부한 승명호 회장의 공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본교 5층에 위치한 승명호 교실, 인조 잔디 운동장에 이어 후배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승명호 회장의 모습이 돋보였다. 또한 이 날 승명호 회장은 경희고 후배들을 위한 여러 조언을 하였는데, 특히나 후배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건강·체력 관리 또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희 월드컵이 한창이던 당일, 후배들을 위해 지원능력 아끼지 않는 승명호 회장에 대해 학생들도 감사를 표했다.



-20204 김민성-



## 경희 월드컵

#가을 #페어플레이 #추억 만들기

어느덧 날씨도 꽤 선선해지고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이 확 느껴지는 요즘,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오직 이날만 바라보면서 지내왔다. 바로 경희 월드컵이다. 학생들은 우승을 위한 의지를 다지며 일주일 전부터 연습 모드에 돌입하였다.



10월 14일 진행된 경희 월드컵은 4월부터 예선전을 거쳐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경기 시간은 축구 전·후반 각 15분씩, 농구 전·후반 각 10분씩으로 이루어졌다. 열심히 뛰고 있는 경기장 옆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다양하게 살 수 있었고 학생들이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농구 1부·2부 리그 대진표>



<축구 1부·2부 리그 대진표>

축구 1부 리그는 2학년 1반과 2학년 2반이, 2부 리그는 1학년 7반과 2학년 8반이 결승에 진출했고, 농구 1부 리그는 1학년 7반과 2학년 7반이, 2부 리그는 2학년 4반과 1학년 5반이 결승에 진출했다.



축구 1부 리그는 '문과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다. 결과는 2학년 1반의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했지만, 진 팀이나 이긴 팀이나 다 같이 웃으며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2부 리그도 마찬가지로 승부차기로 2학년 8반이 우승을 차지했다. 농구는 1부 리그에 1학년 7반이, 2부 리그에서는 1학년 4반이 우승을 거머쥐며 1학년의 패기를 보여주었다.



각 우승 반들은 학교 매점에서 쓸 수 있는 상금을 상품으로 받았다. 9시간 정도 진행된 경희 월드컵은 같은 반은 물론 다른 반 친구들과끼리도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0111 손예준-



## 진로의 날

#국회의사당 #건국대학교 탐방



10월 15일 진로의 날을 맞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회의사를 찾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6.25 이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국회가 태평로 정치 시대를 끝내고 여의도 정치 시대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975~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소이다.

국회 정문에 들어서자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산실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사당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다름없는 국회의사당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국회의사당의 위풍당당한 위용은 동양 최대의 단일의사당 건물이라는 평을 아깝지 않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회의사당 건물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가 담겨있었는데 의사당의 처마를 떠받치는 24개의 기둥은 24절기를 전면부의 8개의 기둥은 전국 8도를 상징하고 이제는 국회의사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회녹색의 돔 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토론을 거쳐 하나의 원만한 결론으로 모이는 의회 민주 정치의 본질을 나타낸다.

국회의사당 참관의 유일한 코스인 본 회의장 관람을 위해 내부로 들어간 후 4층에 있는 본 회의장으로 올라갔다. 방청석에서 국회의 역할이나 기능 등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바라본 회의장은 우리나라 국회의 높은 위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본 회의장을 끝으로 마친 참관을 통해 평소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위적이나 싸우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의회 민주 정치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0603 김도현-



10월 15일 진로에 날에 건국대학교를 다녀왔다. 인솔 가이드분께서 생명과학과 학생으로, 이과계열을 위주로 탐방을 다니게 되었다.

이동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일단 대학교 중요 시설 중 한 곳인 도서관은 지도 기준으로 9번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은 '상허기념 도서관'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는데, 성균관 대학교가 더 큰 도서관을 지으면서 현재 2위로 밀려났다고 한다. 생명 관련 학과들이 모여 있는 생명과학관을 지나, 건국대학교 병원을 가 보았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건국대학교에는 의대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한 장소는 바이오 관련 연구를 하는 산학협동관과 수의학관이었다. 이곳은 건국대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장소 중 한 곳이며, 수의학과는 건국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라고 한다. 건국대에는 '일감호'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다리를 '홍예교'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서로 호감을 느끼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 둘이 사귀게 되고 사귀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 연애에 실패한다는 속설이 있기도 하다. 그다음으로 들린 곳은 건축관이다. 이곳에서 토목과 건축 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탐방 마지막 장소는 학생회관이었다. 학교에서 인증받은 동아리방과 학교 식당이 이곳에 있으며, 시기마다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고 한다. 건국대학교의 가장 큰 이점은 다른 학교 비해서 과 이전을 하기 굉장히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낮은 학과에서 가장 높은 학과까지 전과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대학탐방을 다녀오고서 확실히 공부에 대한 열의가 생겼으며,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많은 학과가 있고 나의 진로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고 생각한다.

-20309 박건우-

## 서울 중부지역 리그 우승 - 왕중왕전으로 이어지다 #리그 무패 #왕중왕전으로!

지난 17일 효창운동장에서 서울 중부지역 리그 마지막 경기 서울 언남고와 경희고가 맞붙었다. 전반전은 경희고가 경기를 리드했다. 경희고 전경진이 한명을 제치고 날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을 한수민이 넣었다. 다들 경희고의 선제골을 보고 소리를 질렀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어 많은 관중들의 아쉬움을 낳았다. 결국 양팀 다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전반전이 종료되었다.

후반전이 시작된 후 언남고는 전반전과 다른 모습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이용하여 경희고를 압박하였다. 언남고는 좋은 자리에서 슈팅이 났지만, 골키퍼 정면을 향하면서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후반 10분, 경희고가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볼을 조승현이 받아 바로 슈트를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이었다. 언남고는 답답한 경기 상황 속에서 공격적으로 나가기 위해 교체카드를 꺼내면서 흐름을 바꿨지만, 경희고의 단단한 수비로 경기는 끝내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경희고는 무패로 서울 중부지역 우승을 거머쥐었고, 언남고는 단 1패로 리그 2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서울 경희고는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머쥐고 11월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20107 박승훈-



-10603 김도현-

만든사람들 경희고등학교 교지편집·기자반

- 김도현, 박승훈, 손예준, 송창학, 김민성, 김정현,  
김근석, 박건우, 강수영, 김준원, 박서진

##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

10월 30일(수), 경희고등학교 강당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본 교육은 이처럼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생명 경시 풍조를 완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청소년 자살의 특징과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방법에 대해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주변의 친구가 어떠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삶을 바꾸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